

## 알함브라 궁전

The Alhambra

安秉義/김중업중함건축사사무소  
by Ahn Byong-Ui

이 궁전은 언덕위에 세워진 중세의 성벽이다.

성(城)주위는 30개 이상의 탑으로 둘러싸여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요새로 알려져 있었다. 알함브라는 아랍말로 붉은성이라는 뜻으로 성벽에 쓰여진 돌에 붉은 철분이 많이 섞여있어 얼핏 붉게 보인다.

이 궁전은 군대의 숙소와 포로들의 감옥, 왕궁, 그리고 시민들의 주거로 나누어지고 물론 왕궁이 그 중심으로 호화찬란한 장식과 아랍건축의 미의식(美意識), 조경기술의 표본이 함께 어우러진 예술품이다. 그 디자인의 원칙은 물과 빛과 그리고 꽃이며, 이 세가지는 무미 건조한 사막의 생활에 안식과 평화를 가져오게 한다.

「피레네산맥을 넘으면 곧 아프리카」라고 나폴레옹은 말했다는데,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유럽은 피레네산맥까지라는 인식이 옛날부터 있었듯이 이 산맥을 분수령으로하여 북쪽은 불란서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전원인 반면 남쪽의 이베리아반도는 바위투성이의 험준한 산들과 나무도 별로없는 황량한 들판이 실증나리만치 이어진다. 저녁엔 파리를 떠나 스페인이 자랑하는 초급행 『딸고』를 타고 아침 여덟시 쯤에 수도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장장 열세시간이 걸렸다.

스페인인 구라파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와 별로 인연이 없고 낯설기만하다. 그러나 『동기호테』를 쓴 『세르반테스』의 나라이고, 『피카소』와 『고야』 『달리』 등

쟁쟁한 예술가의 나라이며, 눈매가 몹시도 요염한 『에바, 가드너』의 고향이요, 건축가로는 『가우디』와 『조세루이셀트』를 낳은 자랑할 만한 국가이다. 또한 한때 스페인함대는 영국에 앞서 세계를 손아귀에 넣지 않았던가. 나는 이러한 위대한 풍토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싶었다. 특히 보고 싶었던 것은 알함브라 궁전이다. 그것은 스페인의 남쪽 『그라나다』라는 작은 마을에 있어 황량한 벌판을 여덟시간이나 더 가야만했다. 돌아가신 김중업(金重業)선생께서 스쿠터를 타고 피레네 산맥을 거쳐, 알함브라궁전을 불려고 이곳까지 내려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무엇에 끌렸을까? 알함브라는 파리에서는 지구의 끝이라고 여겨질만한 거리인데 말이다. 기원 7세기에 예언자 모하메드는 아라비아에 이슬람교를 세우고 차례차례 다른 민족을 정복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8세기에는 스페인을 손아귀에 넣게 된다.

그리고 9세기에 이르러 알함브라 궁전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궁전은 언덕위에 세워진 중세의 성벽이다. 성(城)주위는 30개 이상의 탑으로 둘러싸여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요새로 알려져 있었다. 알함브라는 아랍말로 붉은성이라는 뜻으로 성벽에 쓰여진 돌에 붉은 철분이 많이 섞여있어 얼핏 붉게 보인다. 이 궁전은 군대의 숙소와 포로들의 감옥, 왕궁, 그리고 시민들의 주거로 나누어지고 물론 왕궁이 그 중심으로 호화찬란한 장식과 아랍건축의 미의식(美意識), 조경기술의 표본이 함께 어우러진 예술품이다. 그 디자인의 원칙은 물과 빛과 그리고 꽃이다. 이 세가지는 무미 건조한 사막의 생활에 안식과 평화를 가져오게 한다. 이를 위해 안뜰은 반드시 갖추어야만 한다. 연못의

수면은 건물의 이취의 그림자가 어리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때때로 산들바람이 불어와 수면에 비친 그림자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일그러져 보인다. 이 안뜰을 향해 많은 창들이 꾸며져, 햇빛은 방안의 바닥과 벽에 그림자를 떨군다.

이 아름다운 궁전의 명성은 그 옛날 널리 퍼져있었다. 그래서 기독교도들은 오랜 세월 아랍과 싸워 마침내 항복을 받아냈는데, 이 마을과 알함브라 궁전을 파괴하지 않고 고스란히 넘겨받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의 승리이며 이슬람건축의 에스프리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이후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중세기 건축의 으뜸을 인도의 타지마할과 알함브라궁전이라고 생각한다. 돌아가신 왕비를 향한 사무친 정이 빚어낸 귀한 보석같은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타지마할이라면 알함브라는 언덕위에 우뚝 솟은 성벽이 남성적 아름다움으로 빛난다. 이곳 알함브라의 꽃향기 가득한 안뜰에서는 왕과 별거벗은 애첩들과의 향연이 벌어졌던 곳이다. 전자가 정신적인 승화된 사랑의 상징이라면 후자는 육욕(肉慾)의 환락이 묻어나는 곳이다.

그러나 이 궁전의 내부공간은 더없이 아름다운 아라베스크의 장식으로 휘감겨 있다. 이 성을 전쟁으로 파괴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넘겨받고 싶어했던 기독교인들의 집착이 이해되는 아름다운 궁전이다.

이 궁전은 9세기에서부터 수백년동안 차곡차곡 지어졌다. 내부공간의 현란한 장식과 조경, 멀리 떨어져있는 2,800미터 높이의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이끌어온 물을 정원의 연못으로 쓰는 등 그 당시의 기술을 최고로 동원했다. 수백년에 걸친 공사기간 등은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관념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구라파의 오래된 여러마을도 그렇지만, 스페인 거리의 고색창연한 건물들앞에 서면 바로 흘러간 옛날 중세기에 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일으킨다. 그 중의 하나가 이 왕궁 한가운데 있는 대사(大使)의 방으로 바로 1492년에 콜롬버스가 당시의 임금이었던 이사베라 여왕을 알현한 곳이다. 그리고 곧바로 미국대륙 발견의 대항해를 떠났다. 이 방에 이르니 타임머신을 타고 5백년전의 옛날로 되돌아간 감회에 젖게된다. 수만년전이라고 추측되는 알타미라 동굴은 스페인과 불란서의 국경지대 피레네산맥에 있는데, 그 복제품이 마드리드의 고고학박물관

지하에 꾸며져 있다. 어두컴컴한 지하동굴 천장에 인류 최초의 그림이라는 붉은소가 재현되어 있다. 지하 암흑동굴에서 갑자기 지상에 나오니 거기는 마드리드의 6월 햇살이 눈부시다. 어쩔 수 없이 20세기의 현실로 되돌아온다.

문득 옛날에 읽은 『앨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 실렸던 글구가 떠올랐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역사는 약 5만년정도인데 이것을 인간의 수명(약 62년)으로 나누면 약 8백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회에 이루어놓은 발전이 그 이전의 7백99회의 세월 동안의 것보다 훨씬 큰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속도가 붙어 훨씬 빠른 속도로 사회전반이 발전하게 된다고 한다. 나는 여기에 한가닥 공포감마저 느껴진다. 그 빠른 변천의 속도에 우리의 사회생활의 습관과 감성이 쉽게 적응될 수 있을까. 실제로 나 자신은 이 공포감(?)을 현실로 느끼고 있다.

나는 모더니즘 건축을 배웠고, 그후 레이트 모더니즘을 좋아했고, 익숙해졌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딘가 경망스러워 보이니 내 비위에 거슬린다. 그러나 세상이 온통 포스트모더니즘의 깃발로 나부끼고 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초연한 셈이다. 곧 그것도 쉽게 새로운 사조가 유행될터인데 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차라리 익혀온 레이트 모더니즘에서나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볼려고 할 따름이다.

이번 여행은 20일중에 스페인에서 한 주일을 보냈다. K.A.I.편으로 로마에 내려 스위스, 파리, 영국을 거쳐 마드리드에서 역시 K.A.I.편으로 돌아왔다. 중점을 스페인에 둔 셈이다. 아내와 더불어 배낭을 지고 유레이패스로 마음내키는 대로 돌아다녔다. 수만년전의 알타미라 동굴에서 중세의 알함브라까지 시간을 초월한 행로에서 무엇을 보았고 느꼈는지 다시한번 정리해볼 생각이다. 나는 어네스트 헤밍웨이를 좋아한다. 스페인 내란에 참가하고 나서 그의 대표작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남겼다. 피카소 또한 좋아한다. 마드리드의 미술관에서 그의 『게르니카』를 본 감동은 잊을 수가 없다. 특히 『게르니카』를 위한 방대한 스케치가 나를 끌었다. 알함브라궁전옆 집시들의 마을 토굴에서 본 후라멩코의 감격도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훗날 스페인의 추억을 다시 차분히 정리해볼 생각이다.